

##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인내를 하기보다는 눈부신 노력을 하는 편이 쉽다

김민주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6년도 5급 공채 국제통상직렬 합격

### I. 공부기간 및 스타일

#### 1. 재학 중 수험 입문 및 기초다지기(2009~2012; 1년반 휴학)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고시를 목표로 정했고, 1학년 2학기부터는 1순환, 2순환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대학생활과 고시공부를 병행하면서 3순환 수업이 있는 상반기에 주로 휴학을 하고 신림동 고시촌에 머물면서 학원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했습니다. 학기 중에도 최대한 고시와 관련이 있는 과목을 들어서 고시공부 외의 학업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학생회 활동, 사교활동의 영향 및 짧은 3순환기간에 공부를 이어가기에는 양이 많아서 고시공부 전반적으로 집중·심화적인 공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2. 본격적인 공부 및 전반적인 실력향상(2013-2014; 2013년 4점차로 2차탈락, 5개월취업준비, 2014년 1차탈락)

졸업 후 본격적으로 고시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다만, 집이 수도권인지라 신림동 고시촌은 1차 시험 이후에만 머물면서 3순환 기간부터 2차 시험 전까지의 4~5개월을 집중적으로 이용했습니다.

2013년에는 예년과 달리 1차가 한 달 앞당겨져서 1차 이후 2차 시험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강도 높은 답안스터디에 합류하게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각오와 열정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5개월 간 월~토 주 6일을 아침 5시 반에 기상하여 밤 12시 취침하면서 아침에는 영어스터디, 오후나 저녁에 조문암기 및 100점(3순환 후 150~200점) 답안스터디를 하였습니다. 3순환기간에는 스터디에서는 50점을 작성하였고, 오전이나 저녁에 학원강의를 들어서 최대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국제통상직렬은 영어와 제2외국어를 꾸준히 해야하므로 하루 최소 3시간은 두 과목에 할애하였고, 주로 아침과 스터디가 끝난 저녁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영어는 과외를, 프랑스어는 학원수업을 병행했습니다. 학원강의가 없을 때는 스터디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스태워치로 14시간~15시간 정도 공부시간을 채웠고, 이 기간동안 실력있는 스터디원들과 답안쓰기를 꾸준히 하고 논문과목들의 sub.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양을 소화하면서 크게 실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취업준비에서 고시로 돌아와 큰 각오로 다시 임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인원으로 인해 1차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다만, 이미 고시로 인생의 목표를 정했던 터라 큰 방황없이 2차시험 전까지 예년처럼 신념동에 들어가 3순환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직접 꾸려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집중도는 떨어졌으나, 스터디나 강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부에 대한 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해부터는 강사를 바꿔가면서 3순환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면서 취약한 부분(국제법 기본서 읽기, 국제경제학 sub.만들기, 경제학 기초강의)을 보완했습니다.

### 3. 면접탈락과 탄탄한 실력쌓기(2015-2016; 2015년 컷으로 3차탈락(61.62), 2016년 최종합격(68.07))

2015년에는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들어서 1차를 잘 봐 놓아야 1차 발표까지 마음 놓고 2차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 달 전부터 약한 부분(자료해석 유형과 약/비타민)을 꾸준히 준비하였고, 모의고사도 각 과목당 선생님 두 분 것을 모두 풀고 검토했습니다. 1차 시험 이후에는 강도 높은 스터디를 계속하고 싶어서 스터디원을 직접 모집하여 조문암기, 100점 답안스터디 및 언어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또한, 1년동안 쉬었던 영어과외도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정도 공부하였으며, 국제법 강사를 바꾸면서 좀 더 시간을 투자했고, 전년도 하반기에 하던 공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리 만들어놓은 sub.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심화, 보충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 면접에서 탈락한 후 바로 마음을 잡고 2016년 최종합격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차면제가 적용되어서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차

전까지는 집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취약한 과목인 영어와 국제경제학을 좀 더 보완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부터는 같이 면접에서 탈락한 친구와 스터디를 꾸려서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강도 높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어 공부한 부분은 3순환 또는 심화특강에서 강조하는 논리나 시사적인 부분까지도 최대한 소화하여 결과적으로 질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 과목에서 단어하나, 문장하나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법리 등을 포함한 정교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1차와 2차 사이에 수험기간이 짧아서 6월에는 최대한 답안을 쓰지 않고 공부시간을 늘렸습니다. 2차 합격 후에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면접을 준비하였고, 오랜 수험기간을 끝내고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II. 과목별 수험공부방법

### 1. 1차 과목(2009~2013년 합격, 2014년 탈락, 2015년 평균 81.66, 2016년 면제)

- 강사 및 강의: 석치수 자료해석 기본강의/ 박준범 상황판단 기본, 심화/언어논리 기본강의
- 수험도서: 신현/석치수 기본강의문제집, 박준범 기본, 심화문제집, 언어논리 기본강의문제집
- 그 외: 석치수 비타민, 논리자료, 석치수/신현/이주섭/김우진 최종모의고사

#### (1) 언어논리(2015년 85점)

1교시에 배정되어 있는 언어논리는 1차시험 당일 컨디션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자료해석이 취약했기 때문에 언어논리는 고득점을 하여 평균을 끌어올리는 과목이었습니다. 많이 긴장하면 오히려 집중이 떨어지는 스타일이어서, 늘 시험 시작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하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집중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입문할 당시에 유형과악과 문제집을 전부 풀어보아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었으나, 논리문제에서 50% 이상 틀리는 것을 발견하고 언어논리 기본강의서에서 논리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논리이론, 문제들을 프린트하여 따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최소한 5분전에는 문제를 끝까지 다 보도록 하였고 마킹을 한 후 체크해놓은 문제 위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항상 언어논리는 100점을 목표로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풀이에 임했습니다.

## (2) 자료해석(2015년 82.5점)

자료해석은 가장 취약한 과목으로 40문제를 다 풀 적은 없었습니다. 1차에 투자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료해석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를 80분에 35문제로 잡고 연습하였으나 여전히 정답률이 90%가 안 되어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2014년에 1차를 떨어지고 나서 2015년에는 인원이 배 이상 줄어들었고, 알고 보면 자료해석이 가장 점수를 올리기 쉬운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석치수 기본강의를 차근차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료해석에서 시간과 정확성은 모두 단순사칙연산과 분수/퍼센트 비교에서 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 자료인 비타민을 구해서 매일매일 한두장씩 풀었습니다.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유형별로 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고, 문제를 보면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서도 3분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 문제는 바로 체크하고 넘겨서 40번까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놓고 남은 시간동안 체크해 놓은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또한 언어와 달리 문제 흐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킹은 넘긴 문제를 포함하여 5개 단위로 바로바로 하였고, 마지막까지 손대지 못한 문제는 한 번호로 마킹하여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2015년에는 자료해석이 상대적으로 쉽게 제출되어 처음으로 80점대를 맞았습니다.

## (3) 상황판단(2015년 78점)

상황판단은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이 문제마다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어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범조문 문제 등을 포함하여 언어위주의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수학이 필요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상황판단에서도 계산 속도가 느려 처음부터 40문제를 전부 풀기는 어려웠습니다. 상황판단역시 자료해석과 마찬가지로 2분 30초에서 3분안에 정확하게 풀수있는 문제인지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3분이 넘어가는 문제유형은 자신이 없으면 체크한 후 과감히 넘기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40번까지 먼저 풀 후 다시 돌아와 하나씩 풀었습니다. 2015년에는 비타민을 한두장씩 풀어 기본연산과 대수비교의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진 것이 상황판단에서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 (4) 모의고사풀이

모의고사는 1차시험 바로 전날 혹은 그 전날에 마지막 세트를 풀 수 있도록 약

10일 전부터 주 6일 하루 한 세트(3과목 한 세트씩)를 시간을 재고 푼 후 검토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다만, 고득점을 해야하는 언어논리는 마지막 해에는 20일전부터 두 세트, 자료해석 또한 한 세트 이상을 풀고 검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잘 풀리는 편이라 하루에 한 세트 이상 푼 적은 거의 없었고 남은 시간에는 추가 자료나 비타민, 취약한 유형 위주로 심화 학습을 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점수에는 거의 연연하지 않고 실제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못 푼 문제는 찍은 후 채점했으며, 문제의 유형과악과 틀린 원인 분석에 치중해서 실제 시험에서 나왔을 경우 최대한 틀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공부한 것이 유익했습니다.

## 2. 행정법(2015년 47점, 2016년 56.33점)

- 강사 및 강의: 김정일 1,2,3순환(입문)/정선균 1,3순환(3년)/류준세3순환 한번 수강
- 2015-16년 수험도서: 총론-김정일 요론/정선균 엑기스, 각론-정선균 엑기스
- 사례집: 박정훈사례집, 행정판례백선(정선균), 정선균 엑기스연습
- 그 외: sub.노트, 정선균 핸드북, 김기홍 3순환 자료

### (1) 논점파악과 목차잡기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논점을 묻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행정법 답안작성의 시작이면서도 결국 득점으로 연결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입문단계(1~2순환)에서는 정선사례집(50점짜리/60문제)을 하루 세 문제씩 한 시간동안 목차를 잡고 바로 모범답안과 비교해보는 스테디를 통해 논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문제가 톱으로 나온 2013년의 경우 이 방법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50점 또는 100점 답안을 쓰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특히, 3,4순환이나 사례집 중에서는 논점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들은 반복해서 공부하여 다시 보았을 때 논점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서론부터 각론까지 수험서의 목차만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2) 서론-작용법(손해전보)-쟁송법-각론

행정법은 서론부터 각론까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관통하는 맥락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처음 행정법을 배울 때 서론과 작용법 기초를 탄탄히 해놓은 것이 이후 소송법과 각론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론과 작용법은 마지막까지 행정법요론(김정일)을 토대로 꼼꼼히 공부하였고

행정법과목은 항상 요론을 한번 읽고, 1순환 필기를 한번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엑기스(정성균)를 참고하여 논점별로 sub.노트를 만들어 답안에 쓸 내용을 정리하였고 판례문구나, 최신판례를 추가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행정법과 각론은 엑기스를 기본으로 3순환 강의 때 체크한 엑기스 연습을 함께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sub.노트가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sub.노트는 시간을 들여 수험서를 공부하면서 판례문구를 포함하여 답안에 그대로 옮겨도 될 정도로 꼼꼼히 만들었고, 기억해야 할 판례들도 추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김기홍 3순환 강의안에서 판례나 처음보는 부분들도 발췌하여 추가했습니다.

각론은 총론에 밀려서 소홀해 지기 쉬운데 마지막 해에는 2차전까지 각론을 3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각론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작용법, 소송법과 연관된 주제들은 필히 익숙해지도록 공부하고 법조문도 여러 번 보아 시험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각 파트마다 나올 수 있는 논점을 판례와 함께 목차위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시나 번시에 이미 출제된 리딩판례부터 모의고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부분은 따로 정리하여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했습니다.

### (3) 판례공부

기본적으로는 엑기스연습과 여러 강사님들의 3,4순환 모의고사를 통해 리딩판례나 최신판례를 공부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각 논점별로 꼭 써야하는 판례문구는 그대로 외워서 답안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례문구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문제의 논점일 경우에 쓰는 것이 중요해서 무조건 암기하기 보다는 그 판례문구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2015-16년도에는 박정훈 사례집과 행정판례백선(정성균)으로 심화학습을 했습니다. 행정판례백선은 특강에서 공부한 것을 중심으로 해당 판례의 의의와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박정훈 사례집의 경우에도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여 최대한 답안에 표현할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박정훈 사례집의 경우 저도 양이 많아 다 보지 못하였으나 보통 상, 하 두 권 중 하를 먼저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례들도 많아 간단하게나마 내용과 결론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 (4) 답안작성과 마무리

행정법 답안은 거의 문제점-의의-학설-판례-검토및사안의 경우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문제점과 사안포섭의 경우에 문제를 꼼꼼히 읽어 출제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문제에 나와있는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포섭했습니다. 10점짜리 한 장을 기준으로 문제점은 2~3줄, 검토및사안의 경우는 평균 5~6줄 또는 그 이상으로 가장 중요성을 두고 서술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정성균 강의를 오후에 듣고 메인스터디에서 류준세 50점 모의고사를 작성하였고, 3순환이 끝난 후 5~6월에는 4순환과 사시, 변시 포함 기출문제를 골라 풀었습니다. 답안스터디와 별개로 핸드북(정성균)을 2-3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에 정점 7~8개(2회독째에는 10개)를 외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3개를 무작위로 뽑아 20분간 빠르게 쓰고 말로 해보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또한 시험 바로 전인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각론부터 요론과 엑기스, sub.노트를 중심으로 따로 체크해놓은 문제들을 포함하여 빠르게 훑으며 대비했습니다.

### 3. 국제법(2015년 67점, 2016년 53.66점)

- 강사 및 강의: 안진우 1,2,3순환 및 답안지특강(3년)/정성주 1,3순환(3년)/백승호3순환 한번수강
- 2015-16년 수험도서: 기본서-김대순 저/ 정인섭 저/ 국제경제법 공저
- 강의안-정성주 cube국제법/국제경제법, 3순환자료(심화주제/판례연습), 안진우 국제법연습,
- 그 외: 국제법/국제경제법 판례집, 국제조약(박용용)/WTO통상조약집(박덕영), sub.노트, 백승호 심화주제연습, 안진우 3순환자료/답안지특강자료, 주요 논문, 판례one-page summary

#### (1) 기본서 읽기의 중요성

국제법 기본서로는 김대순 저 국제법론과 정인섭 저 신국제법강의, 그리고 27인 국제경제법 공저가 있습니다. 국제법 기본서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심화적인 부분까지 한 권의 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과 국제법의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순 저의 경우 양이 방대하여 안진우 1순환 강의에서 체크한 부분 위주로 읽었으며, 정인섭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하나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다만, 정인섭 저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대순 저와 강의안을 늘 함께 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sub.노트도 일반국제법의 경우에는 김대순 저를 이용하여 많이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 해의 경우 불의타가 출제되어 고득점에는 실패하였으나, 2015년을 포함하여 매년마다 마지막까지 국제법 기본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기본서는 반복해서 읽을수록 도움이 되



고, 입을 때에는 각 주제별로 법리를 최대한 익히려고 하였습니다. 국제경제법 공저의 경우에는 양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완벽히 숙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챗터별로 요점정리 식으로 정리하면서 답안에 쓸 문구 등을 뽑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기본서에 나오는 리딩판례들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공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조문암기

조문암기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차 이후 메인스터디가 시작하는 날부터 6월에 최종 정리 직전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 6일 조문암기를 했습니다.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가리지 않고 랜덤으로 섞어 하루 혹은 이틀에 하나의 조약(협정)을 암기하여 메인스터디 시작 30분 전에 모여 약 15분을 빠르게 쓰고 말로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문암기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필요한 거의 모든 조항을 다 보고 스테디에 참여하였지만, 조문암기에 크게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스테디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만 암기해 와서 참여하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는 하루에 하나 혹은 두 개로 양을 늘려 2차 전까지 전체조문을 4번 암기했습니다. 또한 남극조약, 달조약, 환경조약과 같은 각론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두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암기했습니다.

## (3) sub.노트, 강의안과 여러 자료의 활용

국제법과목은 양이 매우 방대하여 전부 다 sub.노트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sub.노트를 만들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직접 만든 부분은 기억도 잘 나기 때문에 워드작업을 통해서 정성주 강의안을 바탕으로 sub.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도가 높고 일반적인 단원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여러 해에 걸쳐 일반국제법의 경우 김대순 저와 안진우 3순환 내용을 보충하였고, 점차 각론도 만들었습니다. 미처 만들지 못한 부분도 목차위주로 정리하여 최대한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국제법의 경우, 강사마다 스타일이 많이 달라 두 강의가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ub.노트를 정성주 강의안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안진우 1,3순환 강의를 바탕으로 김대순 저와 정인섭 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반복하여 읽어서 숙지했고, sub.노트에 보충했습니다.

국제경제법은 가장 양이 많고 내용이 구체적인 정성주 강의안을 바탕으로 sub.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제법에는 답안에 써야 할 판례가 많고 각 협정에



서 살펴보아야 할 조항의 개수가 많아서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정성주 강의안이 빠짐없이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진우 3순환과 답안지 특강을 들으면서 꼭직한 중요 주제나 보다 최근의 국제법 흐름에 맞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sub.노트와 기본서 이외에는 정성주 3순환 자료(판례/판례연습/심화자료)를 구해, 판례연습은 별도로 시간을 내어 풀어보고, 판례연습을 포함한 판례자료들을 판례집과 함께 공부하여 답안에 쓸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심화자료/시사자료의 경우에도 빠르게 읽으면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2016년에는 안진우 국제법연습이 새로 출판되어 쟁점별로 목차와 내용을 체크했습니다. 특히, 답안을 많이 써 본적이 없는 주제들은 반복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6월에는 백승호 심화주제연습(전 2권)을 조문암기범위에 맞추어 나올만한 문제를 뽑아서 빠르게 목차 및 문구위주로 작성하고 서로 이야기해보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진우 답안지특강을 들으면서 답안의 흐름과 출제유력주제들을 훑어보았고 이는 기본서의 해당 주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딩판례나 최신판례의 경우 one-page summary에서 부분발췌하여 정리하고 중요 논문들도 최대한 간략히 요약해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 (4) 선택과 집중, 마무리

국제법은 무조건 양을 늘리기만 하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시간에 답안에 쓸 수 있는 정도로 양을 조절해서 정리한 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sub.노트를 만들고 여기에 주제별로 추가하는 과정에서는 공부량을 늘렸다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불의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짧게 혹은 목차라도 주제별로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최신판례와 심화자료 등을 추가하여 시험 바로 전날에는 정리한 것과 체크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답안작성의 경우 논의의 서/의의와 검토부분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사적인 부분이나 해당 쟁점이 국제법 전반적인 흐름에서 어디에 있으며 왜 중요한가를 써주는 것이 답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정성주 모의고사 70-100점을 매일 작성하였고, 5월에는 안진우 3순환 모의고사와 각 4순환 모의고사를 발췌하여 풀고, 6월에는 기출문제 5개년을 모두 답안으로 작성하여 기출문제의 의도와 유형을 파악하였습니다.

#### 4. 국제경제학(2015년 67점, 2016년 76.33점)

- 강사 및 강의: 김진옥 1,2,3순환(3년)/황중휴 1,3순환(3년)/유창석 3순환 한번 수강
- 2015=16년 수험도서: 김인준 저, 김진옥 3순환 자료, 황중휴 1,3순환 자료, zip(김진옥), Practice book(황중휴)
- 그 외: sub.노트, 그래프 정리노트, 경제학 미·거시 기초자료, 거시 Trinity(황중휴)

##### (1) 기본서와 sub./그래프 노트

기본서는 크게 김인준 저와 김신행 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시기에는 두 가지를 모두 보았으나 처음 입문 당시 기본서였던 김인준 저 국제경제론이 더 정리하기가 쉬워 마지막 해에는 김인준 저를 기본으로 김신행 저에만 있는 내용(DD-AA 모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김인준 저가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읽는 경우에는 보다 심화학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본서는 국제경제학 수험공부의 뼈대가 되는 것으로 필요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완벽히 숙지하면 숙지할수록 논점파악 및 답안작성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제학 공부 기간에는 항상 시험 전날을 제외하고는 김진옥 1순환 필기가 되어있는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었고, 마지막 해에는 3회독을 했습니다. 연습문제도 가능한 한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무역론과 금융론 각 파트 뒤쪽의 시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챕터별로 sub.노트를 만들어서 해당 챕터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답안에 쓸 수 있도록 하였고, 황중휴 1순환 필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서 기본서에 있는 거의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주제별 약술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많은 변수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모형이 다르고, 같은 문제도 다른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sub.노트와는 별개로 A4용지에 각 모형별로 변수에 따른 그래프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그래프 하나 8x8cm, 가정, 변수표시) 마지막 해에는 이 그래프 모음 노트에 답안에 쓸 심화적인 부분을 점차 추가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 (2) 미·거시 경제학 기초와 단권화

2013년부터 국제경제학에 경제학을 베이스로 한 문제가 점점 출제되어 국제경제학만 주로 준비해오던 방식으로는 문제풀이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2015

년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황종휴 미·거시 1순환을 한 번 수강하였고, 국제경제학에서 주로 다루어지거나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부분과 관련 문제들을 발췌하여 반복하여 공부했습니다.

국제경제학은 계속해서 추록이나 새로운 문제들을 끼워넣을 수 있도록 매우 두꺼운 3공 파일에 김진옥 3순환 자료를 기본으로 황종휴 1,3순환 자료들을 추가하여 단권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서에만 나오는 부분들을 한 장 정도로 정리하여 해당 주제에 대비하였고, 미·거시자료, 시사자료, 3,4순환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 처음보거나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도 파트별로 추가했습니다. 단권화를 하는 과정에서 각 문제가 어느 파트에 포함되며 어떤 쟁점을 가지는지를 잘 정리하였습니다.

### (3) 문제풀이

기본적으로 국제경제학 공부기간에 계속해서 국제경제학zip(김진옥)을 하루 혹은 이틀에 한 챕터씩(총 9챕터) 빠르게 풀고 검토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2차 전까지 3번 반복하여 풀었고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체크해 놓았다가 시험 전날에도 풀어보았습니다. 약술형 문제를 포함해서 zip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들도 답안에 쓸 만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여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Practice book은 한번 풀어본 후 잘 모르는 부분들을 체크하여 해당 파트를 공부할 때 반복했습니다.

경제학 과목은 문제풀이 자체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유사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경제학의 경우에는 문제의 pool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많은 문제풀이를 해서 익숙해지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온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순환 기간에는 김진옥, 황종휴 3순환을 교차하여 총 100점을 작성하였고, 이후 5-6월에는 2015년 김진옥 3,4순환, 행시, 입시 기출 5개년, 2016년 4순환 모의고사를 하루 100점씩 작성했습니다. 특히, 입시 기출은 최신 시사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최대한 소화하려고 하였으며, 강의 내용 중 미·거시부분이 특히 관련된 부분들은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 (4) 답안작성과 마무리

경제학 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재경직렬과 달리 국제통상직렬은 경제학 기초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국제경제학 답안에도 긴 문장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을 잘 파악한 후 적절한 모형과 그래프를 서술할 수 있다면, 남은 부분에는 최대한 많이 서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경직렬과는 달리 답이 틀려도 과정에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론적인 부

분에서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알고있다고 어필하는 것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의 경우에도 40점으로 경제학 문제가 나왔고 2요소생산함수를 두번 전미분하여 노동수요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처음보는 문제가 나왔으나, 최대한 유추하고 문제가 원하는 의도 대로 아웃소싱모형에 대해 아는 대로 서술하여 합격권에 들 수 있었습니다.

시험 직전 최종정리기간과 시험 전날에는 단권화 자료와 sub./그래프 모음 노트의 모든 그래프를 그려보고 외워야할 문구는 다시 한 번 암기했습니다. 또한 따로 체크해놓은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약술형문제도 대비했습니다. 국제경제학 역사 시험전날 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 5. 영어(2015년 64점, 2016년 87점)

- 2014-16년 수험자료: 정영한 문법/ 이코노미스트/ 과외자료(유/송)/ 보카3만/ 통대입시자료/ 번역사
- 그 외: 정영한 writing start-up/모의고사(행시)/독해/어휘집/ 영어순해/, 문법 정리자료/ 주제별 표현정리자료

### (1) 한영/요약/에세이

영어과목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도록 극복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한영번역이었습니다. 영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실력이 느는 것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입문 때부터 writing start-up을 파트 1을 중심으로 3번 이상 외웠고, 정영한 문법책을 구해서 꼼꼼히 2회독 하였습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과외를 들으면서 첨삭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과외자료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매일 한영구문을 표현위주로 외웠습니다.

2013년에는 정영한 문법책을 공부하면서 문법에서 오는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며, 어려운 문법도 다시 익혀두었습니다. 2016년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유사한 동사나 collocation을 따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표현을 따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영어표현을 그대로 외울 수 있도록 하여 영어스러운 표현을 익히도록 하였고, 실제 시험에서도 영어구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뜻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미 아는 표현, 확실한 표현을 통해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최대한 유사동사나 다양한 구문으로 paraphrase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사부터 형용사, 부사, 각종 구문과 고급 문법 등을 과외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반복해서 보면서 최대한 오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에세이는 예전 토플시험 준비와 과외를 바탕으로 정해진 형식을 벗어나지 않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요약 20분, 에세이 20분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길이를 길게 쓰기보다는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연습하였고, 주제별로 정리한 표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관성있고 주장이 명확한 글이 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차 전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주제별로 일주일에 에세이 하나를 쓰고 돌려보는 스테디를 했습니다. 요약은 많이 연습하지는 않았으나 실전에서 최대한 지문에 주어진 내용을 아는 표현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했으며, 정해놓은 형식에 맞추어 서술했습니다.

## (2) 영한

영한 번역은 점수 비중이 30점 정도로 생각보다 점수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특히 빠르게 직역 하는 것과, 번역의 기초를 알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은 또 다른 학문이라고 하는 만큼 한국어와 영어의 기본적인 차이(ex. 물주구문)만 알고 있어도 번역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통대입시자료와 도서 번역사를 통해 번역의 기초와 기본적인 번역 기술을 조금이나마 습득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룹과외를 통해서 첨삭을 받았고 2015년 하반기에는 이코노미스트지를 구독하면서 일주일에 기사 2개씩 시간을 재지않고 번역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정영한 모의고사로도 꾸준한 연습을 했습니다. 2015-16년에는 보카 3만을 하루 5장씩, 숙어는 1장씩 외워 예문 10개씩을 시험보는 스테디를 진행하여 단어가 쓰이는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6. 불어(2015년 32.33점, 2016년 33점)

- 2014-16년 수험자료: 이경자 독해/어휘·숙어/문법, 강의자료(박훈), 모의고사(박훈), 주제별 표현정리자료/ 동사정리자료

### (1) 공부시간 및 강의 활용

기본적으로 이경자 어휘·숙어책을 1차시험이 끝나고부터 매일 3장씩 예문을 전부 외우고 다음날 아침에 전체 예문의 반(두문장 중 하나)을 쓰고 채점하는 스테디를 꾸준히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험생활 초기에는 이경자 독해책을 이틀에 3지문씩 외워 쓰는 스테디를 했으나 2015-16년에는 불어 강의자료를 한 페이지씩 통째로 외워 전부 쓰고 채점하는 스테디를 병행했습니다. 불어는 다른 과목의 시간을 뺏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오전과 자기전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생각이 안나는 경우에 오래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답을 확인하면서 자

기전에 한번, 오전스터디 직전에 한번 외우고 가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4~5월에는 심화강의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씩 첨삭을 받고 여러 표현을 배웠고 5-6월에는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을 받으면서 실전의 감을 익혔습니다. 특히, 첨삭으로 틀린 부분은 다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부했습니다.

## (2) 문법, 표현 정리

이경자 문법과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문법은 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문법은 따로 여러번 반복하여 한불/불한번역 모두에 대비했습니다. 불어구문에서는 동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동사를 각 군별로 따로 정리하고, A4용지에 각 군별로 시제에 따른 동사변화를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동사나 명사/형용사/부사, collocation을 따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표현을 정리하여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불어의 경우 유사하게 쓰이는 어휘들이 많아 주제별 혹은 유사 어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전에서 기억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불어도 colloca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동사 위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7.3차 면접(2015년 탈락, 2016년 최종합격)

### (1) 면접준비와 마음가짐

2015년에 한 번 면접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에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 모아 놓았던 자료들과 합격자들의 조언을 위주로 하나의 노트에 유의할 점을 줄글로 정리하여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면접 준비과정에서는 나는 이미 5급 사무관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모르는 부분에서도 횡설수설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경우 훨씬 프로다운 보일 것입니다. 특히, 합격자 친구가 조언해 준 항상 모든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고 실전에 임했습니다.

2016년에는 2차발표부터 면접까지의 기간이 2주가 조금 넘어 매우 짧았습니다. 따라서 9월 중순부터 서울대에서 하는 면접스터디에 참여하여 주 2~3회 파트별로 연습을 했고, 별개로 지인들과도 pt와 토론 위주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국제통상직렬은 올해 13명 중 11명이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2차 발표 이후 조를 2개

로 나누어 진행할까 하다가 전년도 함께 면접에서 탈락한 친구와 13명 전체가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면접에는 3명 들어가는 방이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정도까지 필요하므로 각 대학 위주로 스터디룸을 미리 예약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료 스터디카페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강의실이 많이 필요했던 올해에는 학교 고시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모여 자기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pt를 작성한 후, 오후에는 토론과 pt, 인성면접의 순서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 (2) 개인PT/토론/협상(국제통상)

개인PT와 토론준비는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 홈페이지, 이진우 정책자료집과 시사자료를 통해서 주로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국제통상의 경우) 2016년 업무보고를 다운받아 파악하고,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 정책을 눈에 익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노트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 아젠다넷과 같은 웹사이트는 꼭 유료로 구독하지 않더라도 최근 이슈들을 한 문장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문을 매일 읽고 활용가능한 주제 위주로 스크랩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의 행정면은 정책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PT는 나만의 형식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시간 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특히, 각 목차에 들어갈 부분을 따로 정리하고 수시로 정책이나 신문자료에서도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여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토론의 경우에는 시사상식이나 기본적인 지식이 유용합니다. 모든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기에 수시로 관심있는 분야의 정책이나 최근 이슈, 용어 등을 따로 정리하여 실제 시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론의 형식과 방향은 참여자들끼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행/재경직과 함께 했던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다른 직렬과 joint스터디를 하여 실전의 감을 익혔습니다. 자료는 이진우 5,7급 문제로 진행했습니다.

국제통상직렬의 경우는 토론이 아닌 협상을 해 왔고, 2015년부터 행정직 전체가 같은 주제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혹시 협상이 나올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에 했던 주제와 기출문제를 가지고 협상연습을 3번 정도 했습니다. 협상역시 소수직렬인 점을 감안할 때 참여자들이 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맷을 익히고 모두발언을 준비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다만, 2016년에도 행정직 전체가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나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 (3) 적성면접/인성면접

적성/인성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고시 생활을 하다보니 면접준비라는 짧은 기간동안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어느 부처에 왜 가고 싶은가/무슨 일을 할 것인가 등 부처/직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을 많이 했고, 탄탄히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고시반의 모의 인성면접을 통해서 실전에 대한 감을 익혔고, 스터디에서는 이진우 자료 중 하루 세 문제를 뽑아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3인 1조로 pt와 함께 인성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적성/인성면접에서 자기기술서는 각각 세 문제이지만 40분동안 예상치 못한 후속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에 이진우 자료나 대학 고시반의 인성면접기출문제들을 보면서 미리 답을 해본 것이 실전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헌법조문부터 공무원관련법조문을 미리 익혀두고 국가 상징이나 애국가 등 국가관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 또 적성면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통상/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Ⅲ. 마인드 컨트롤

수험생활을 졸업 전/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졸업이후에도 신림동 고시촌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을 더 공부하고 최종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머쥌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오전 교회에 가는 것 말고 종교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했고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덜 힘들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적어 보겠습니다.

저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말하자면, 크게 장기적 각오, 일탈, 물입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장기적 각오

먼저 졸업이후 2013-14년에는 몇 년 전부터 고시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취업시장을 겪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도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7,9급도 있지만 함께 스테디했던 언니들이 합격하는 것을 보고 해왔던 공부를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1차탈락을 하고 나서도 바로 고시촌에 들어가 2차전까지 스테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뚜렷한 목표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한 가지 목표로 각오를 다진 이후로는 합격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5급 사무관으로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합격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 경우에는 스터디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2014년부터는 강도 높은 스터디를 직접 모집하여 공부했습니다. 2015년에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에도 큰 방황없이 바로 다음 해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 2. 일탈

학원강의와 스터디 시간을 포함하여 2013년에는 하루 약 15시간, 2015~16년도에는 평균 12시간 정도의 스태워치 공부시간을 채웠습니다. 수험기간이 늘어나면서 공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놓으면 공부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집중력이 떨어져 힘이 들고 효과도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공부시간에 공부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제 경우 놀아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성격이라 운동보다는 노는 시간을 계획에 넣어, 놀 때 확실히 놀고 공부시간에는 확실히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013년에는 잠을 줄이고 저녁을 때우면서까지 공부시간을 확보했지만 역시 하루 공부가 끝나고 3~40분 정도는 예능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특히, 2015~16년도에는 체력이 더욱 떨어져 많은 공부시간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오히려 하루 한 끼는 맛있는 것을 먹고 가끔씩 드라마를 보거나, 일요일에는 교회에 다녀와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2시간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치킨을 먹으면서 축구경기를 보는 등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 하루하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쌓이는 스트레스는 풀고, 아예 받지 않을 수 있는 스트레스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3. 몰입

스트레스를 받지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몸이 아파서 절대적 공부시간이 적었음에도 큰 슬럼프 없이 2016년을 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몰입’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매우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수험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경제적, 가족, 인간관계 등 수많은 압박과 부담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또한 2015년 면접에서 탈락하고 나니 한편으로 더욱 실력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체력도 바닥인 상황에서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부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계획표를 시간 단위로 꼼꼼히 짜 놓고 계획표대로 시간과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하고 있는 공부 ‘자체’에 보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거나 주의가 산만할 때, 고시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챕터나 주제의 논리나 사고를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해당 파트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근저에 깔려있는 논리나 원인까지도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2%정도 되는 공부의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점점 많은 시간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몰입이 잘 된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높은 집중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서 공부가 지루하지 않고, 피곤함도 덜 느꼈습니다. 또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공부하게 되므로 여러 번 외우는 것보다도 기억에 훨씬 잘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되고 더욱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어서 저질로 공부량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부 자체에 집중하니 스트레스는 덜 받고 점점 공부 외적인 것에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니 예전에는 음악을 듣지 못해서 힘이 들었는데 마지막 해에는 음악을 거의 듣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2013년에 하루 5시간 자고 15시간씩 공부할 때보다 훨씬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일 공부 가 잘 될 수는 없지만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의식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몰입이 어떤 것인지 잘 와 닿지 않는다면 황농문 교수의 ‘공부하는 힘’ 도서를 참고하기를 추천합니다.

2016년에는 위와 같은 각오와 적은 스트레스로 높은 효율성을 내려는 노력 끝에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순간마다 벌어지는 나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매일 랜덤으로 한 가지 성경말씀을 알려주는 종갓 어플과 한 가지 명언을 정해진 시간마다 알려주는 스티디헬퍼 어플 알림을 해 놓았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말귀가 나온 경우 캡처하여 폰 배경화면으로 해 놓기도 하고, 매일 아침 또는 자기 전 플래너에 써기기도 하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 경우 영화나 만화 등의 콘텐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장면이나 대사를 프린트하여 책상앞에 붙여놓거나 플래너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2차 시험 직전까지의 몇 달 간의 ‘월간 플래너’와 ‘하루 계획표’를 함께 다달이 책상 앞에 붙여놓고, 수시로 남은 날을 체크해가며 긴장감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소소한 방법이 매일 조금 더 끈기있는 노력을 하는 데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올해 최종발표 때까지 제가 붙잡고 있던 성경말씀은 로마서 5:3-4 말씀, 글귀는 “목적은 이루기 위해서 오랜 인내를 하기보다는 눈부신 노력을 하는 편이 쉽다. -라브뤼에르”입니다.